

10

Oct
2019

지퍼 월간리포트

CEO 레터

No.1 이달의 ZPER 소식

1. 지퍼 디앱(DApp) 개발 소식
2. 스프레딧(SPREADIT) 개발 소식
3. 해시그램, KDB 스타트업 2019 프리 데모 진출

No.2 이달의 ZPER 얼라이언스 소식

1. 편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IBK 기업은행과 협업'
2. 시소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No.3 이달의 P2P 금융 & 블록체인 소식

1. '금융기관 투자 허용' P2P 금융 업계 VC 투자 러쉬
2. '지퍼 어드바이저' BCC 박수용 대표 "블록체인 산업은 옥석 가리기 중"

CEO 레터

Oct
2019



안녕하세요. 지퍼 대표 김준범입니다.

지난 두 번의 레터에서는 P2P 금융에 대한 지퍼 팀의 관점과 리스크,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퍼 토큰이 속해 있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퍼 토큰을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논의의 주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그것은 화폐와 토큰, 가격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암호화폐는 정말 새로운 것인가?’, ‘새롭다면 무엇이 새로우며, 새롭지 않다면 기존의 어떤 것과 같은가?’하는 분석적 질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심이 되는 질문은 ‘프로젝트의 성과와 토큰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치와 성과란 무엇인가?’

제가 굳이 기업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암호화폐의 자체가 기존의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혹은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이 매우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그 기준은 유지 수가 될 수도 있으며 거래를 매개하는 프로젝트라면 거래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프로젝트가 거두는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과 기준은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의 발전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성과와 가치 역시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대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표상하는 토큰 가격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지만 아직 그에 부합하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혹은 벌 수 있을 것 같은가’의 기준으로 일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지퍼를 비롯해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생존과 산업에의 안착 그리고 토큰 가치와의 연동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암호화폐 활황기에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대거 등장했고 현재는 옥석 가리기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고민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퍼 팀은 저희를 비롯해 여러 프로젝트들이 겪은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보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체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펼쳐 간다면 지퍼가 P2P 금융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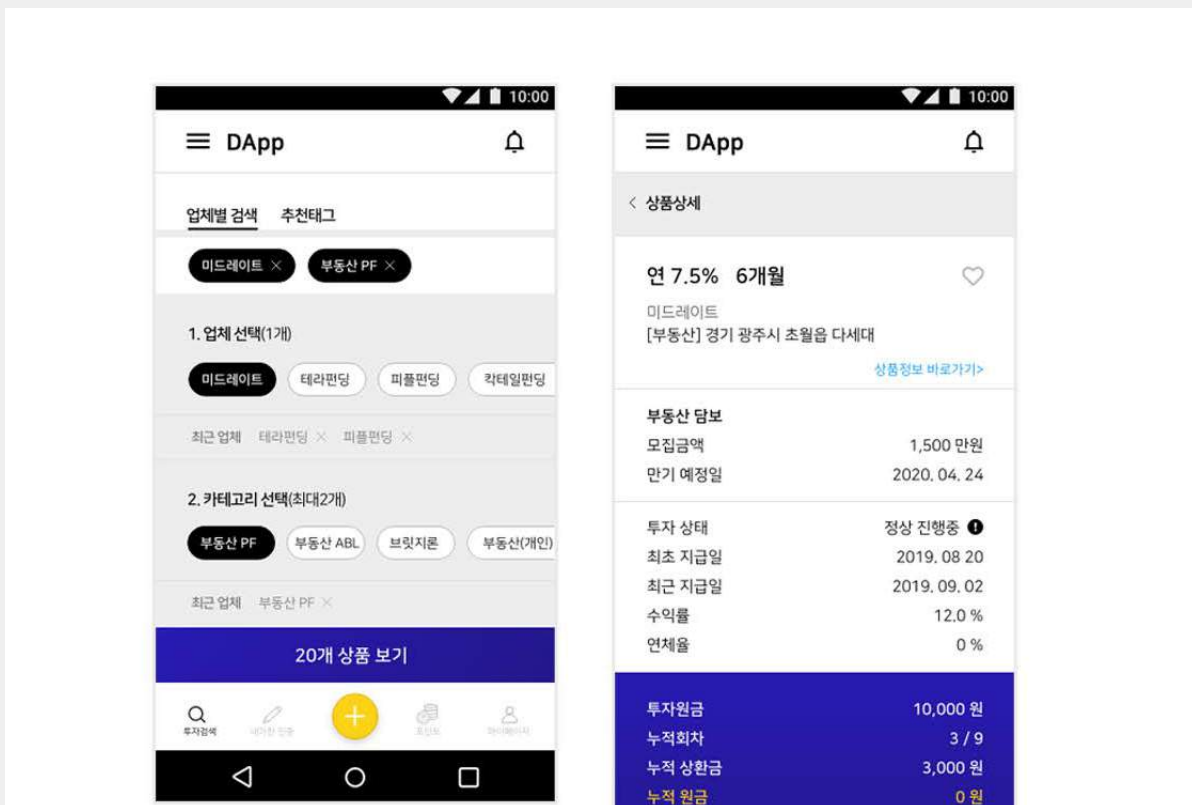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No.1 이달의 ZPER 소식

Oct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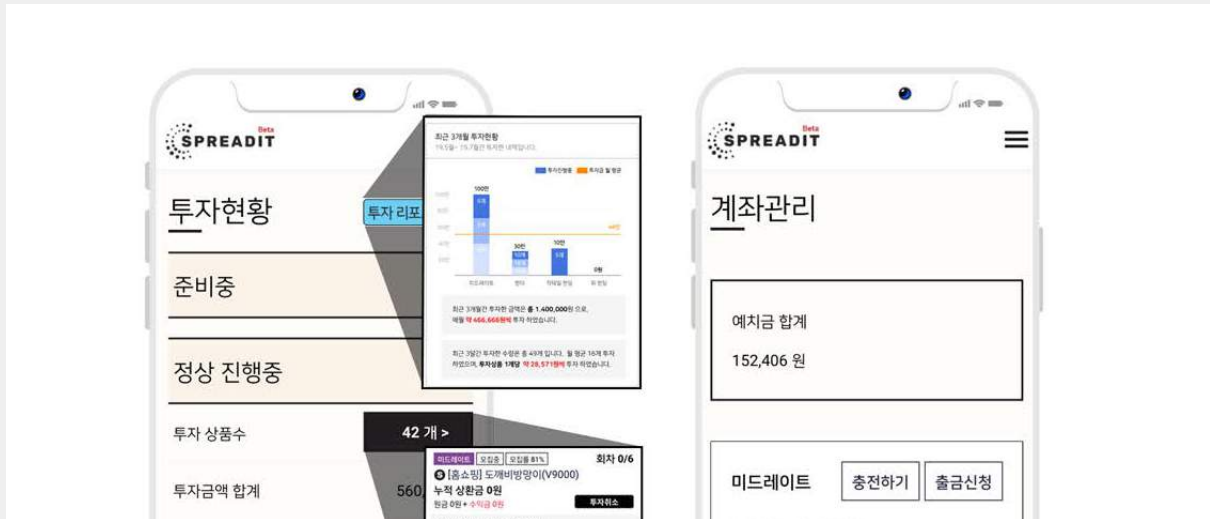
지퍼 디앱(DApp) 개발 소식

지퍼 팀은 지난 9월 지퍼 디앱(DApp) 기획 완료 후 연중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단계적인 개발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퍼 디앱은 '투자 인증 공유 커뮤니티'라는 정체성에 맞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 지퍼 디앱의 성공적 출시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 중입니다.

- 안드로이드 기반 투자 인증, 보상 기능 개발
- 서비스 가치와 브랜딩 요소에 적합한 서비스명 선정
- 인증, 보상에 대한 세부 정책 설정
- 스프레딧 회원, 연동 업체 회원, 기존 P2P 투자자 대상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진행
- P2P 금융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루니버스(Luniverse) 기반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및 개발



스프레딧(SPREADIT) 개발 소식

스프레딧(SPREADIT)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한 추가 기능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들은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현재 스프레딧에서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 예치금 변동 내역 조회: 업체별 조회, 입출금, 투자, 분배 항목별 조회 가능
- 출금 요청: 업체별 출금 요청 가능, 요청 시 등록된 계좌로 출금 처리
- 투자 취소: 모집 중인 상품에 한해 투자 취소 가능

향후 자동투자 기능 및 더 많은 업체들과의 연동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며, 투자자 리포트, 회원 뉴스레터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퍼 디앱과 함께 스프레딧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 중이며, 두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시그랩, KDB 스타트업 2019 프리 데모 진출



지난 16일 해시그랩이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프리 데모(Pre-Demo)에 진출했다.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KDB 산업은행과 KDB 나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총 지원팀은 455팀이며 프리 데모 진출팀은 10팀으로 알려졌다. 프리 데모 평가는 오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7팀은 데모 데이를 거쳐 시상금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시그랩은 지난 6월 출시한 P2P 분산투자 서비스 '스프레딧(SPREADIT)'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해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KDB 스타트업은 이번 프리 데모 진출팀에게 전문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며 진출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이에 맞춰 해시그랩은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딩, 피칭 등의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집중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시그랩 김준범 대표는 "지난 7월 본선 진출 이후 빠짐 없이 클래스에 참석하며 투자 유치, 브랜딩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해시그랩의 성장과 성과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 프리 데모 준비에도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No.2

Oct
2019

이달의 국내 ZPER 얼라이언스 소식 펀다/시소플랫폼



펀다,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선정... 'IBK 기업은행과 협업'

자영업 전문 P2P 금융 업체인 펀다(대표 박성준)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IBK 기업은행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펀다를 비롯해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적용해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지난 1일 펀다는 “지난 4년간 개발한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라며 “해당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펀다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기업은행은 산출된 한도를 토대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해외 온라인 대출 회사들은 은행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라며 “펀다가 그 길을 국내에서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http://bit.ly/2BIKMZs>



시소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동산 담보 전문 P2P 금융 업체인 시소플랫폼(대표 이정운)이 제43회 국가생산성대회의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회는 생산성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소플랫폼은 담보가치 예측 평가 시스템을 비롯한 P2P 전문 솔루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운영 3년간 연체율과 부실률을 0%로 유지하며 동산담보 전문 P2P 금융사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소플랫폼 이정운 대표는 “IoT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http://bit.ly/31LKID1>

No.3 이달의

Oct
2019

P2P 금융 & 블록체인 소식



‘금융기관 투자 허용’ P2P 금융 업계 VC 투자 러쉬

지난 8월 P2P 금융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입법과 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P2P 금융 업계에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투게더펀딩이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개사로부터 130억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것에 이어 렌딧, 8퍼센트, 카테일펀딩 등 주요 업체가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배경에는 P2P 금융법 시행 시 금융기관 투자자의 P2P 금융 투자가 허용되면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외의 P2P 금융 시장은 금융기관의 투자가 허용된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미국의 최대 P2P 금융사 렌딩클럽의 경우 투자자의 83%가 은행 및 금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2P 금융 산업 역시 제도적 변화를 발판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http://bit.ly/2Jmqw45>



‘지퍼 어드바이저’ BCC 박수용 대표 “블록체인 산업은 옥석 가리기 중”

지퍼의 어드바이저로 참여 중인 블록크래프터스(BCC) 박수용 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열린 ‘더 컨퍼런스 2019’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업계 플레이어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블록크래프터스와 디스트리트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더 컨퍼런스 2019’는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면밀히 살펴보고 산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수용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블록체인 산업은 막연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이른바 광풍의 시기를 지났다”라며 “곧 다가올 변화에 앞서 블록체인의 가치사슬을 정의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카일 루 디엡닷컴 대표, 박도현 바이프로스트 대표, 최형원 바이낸스 랩스 이사,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 등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http://bit.ly/31Jm7i9>